

주일의 말씀

첫기적



박수태 안토니오 신부
소화성당 주임

찬미예수님.

우리는 ‘처음’, ‘첫째’ 라는 말을 들으면 신선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미래로 개방되어 있음을 느끼고 사건 전체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는 첫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다는 것은 연대기적 의미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다른 모든 기적들의 원형과 모델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당신 삶의 방향을 함축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혼인이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새로운 하나의 가정을 탄생시킵니다. 혼인에 의해서 탄생한 부부란 둘이 아니고 한 몸입니다. 세상에 어떤 관계도 부부 외에 한 몸을 이루는 관계는 없습니다. 옛날 말에 “3년 병 구환에 효자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TV에서 12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나아가서 웃기기 위해서 춤까지 춰보이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매일 밤 2시간 마다 잠자리를 돌봐줄 수 있는 것은 부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분께서 사람이 되어 오심은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부부의 연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인류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는 여정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사야 예언자는 오늘 1독서에서 교회의 표상인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버림받은 여자” “소박데기”라 하지 않고 “사랑하는 임” “내 아내”라 부르리라 하면서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아내로 맞으신다.”고 합니다. 창조주이신 분께서 신랑으로 오셔서 피조물을 아내로 맞이하신다고 합니다. 그 신랑이 바로 예수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신랑이 신부인 교회에 성령을 선물로 주었다고 2독서는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선물은 신부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은 신랑에게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세상에 기쁨과 풍요로움을 주지만 예수님 자신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술로 변화시키셨지만 마지막에는 물을 당신 피로 변화시키므로써 새 계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막 2,1-11

생명의 말씀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셨다. 요한2,11 참조

이사 62,1-5 1코린 12,4-11 요한2,1-11



미신(迷信) 3

- 오늘의 운세 -

하, 요거 볼까? 말까?

교구 사목국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종으로서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
니다."(사도 16, 17)

정말 흥미로운 것은 점쟁이가 '지금'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쟁이 앞에는 늘 앞날이 궁
금한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런데 이 점쟁이는
앞날이 아니라 '지금'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 놀라운 것은 점쟁이의 입에서 '구원의 길'이 선
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벼락의 운수도 아니
고, 동쪽으로 가면 귀인(貴人)을 만나게 된다는 것도
아니고, 참 행복의 길,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
이 놀랍습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복음적인(?) 점쟁이죠? 참된 행복의 길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잘 풀려
서 살만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시집 장가 잘 가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행복은 참된 구원의 길이 무엇
인지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선포하는 점
쟁이. 이런 복음적인(?) 점쟁이가 우리 주변에 있다
면....., 와우~~ 상상만으로도 흥분되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
니까?”

“지금”- 여러분은 “지금”에 사십니까? 어제의 후회

나 미련에 살지 않습니까? 혹은 내일의 두려움이나
걱정에 살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길” - 여러분은 참된 구원의 길을 걷고 계
십니까? 좋은 직장, 경제적 풍요, 좋은 혼사(婚事),
걱정 할 것 없는 의식주(衣食住)의 만족, 이것이 참
된 행복, 구원이라 혹(惑, 착각, 정신과 마음을 빼앗
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지금, 오늘”에 살지 못할 때 그리고
참된 행복의 길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 혹
(惑)”할 때, 그 때 우리 영혼은 유혹자의 권모술수에
넘어가고 우리 삶도 휘청휘청 갈지자를 그리게 되
는 것이 아닐까요?

유혹자의 속임수는 언제나 이런 모양으로 옵니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
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즐기롭게 해
줄 것처럼 탐스러웠다.”(창세 3, 6)

여자는 혹(惑)하여 먹었지요. 미신의 마력 중 하나
인 물귀신작전으로 남편까지 먹게 했죠. 지금 여러
분의 혹(惑)은 어디를 기웃거리나요? 하느님의 말씀
인 성경?(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면 점집?
철학관? 오늘의 운세? 사주팔자?(아니겠죠?)

(다음 주보에 계속됩니다.)

사목국에서 발간하던 신자재교육시리즈를 책으로 발간하지
않고 매주 주보로 연재합니다.

우리신랑 기적(?) 이야기

박성규 엘리자오





오늘의 미사

연중 제2주일

입당성가

32 언제나 주님과 함께

화답송

◎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야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512 주여 우리는 지금

영성체송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파견성가

34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영성의 향기

::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

우리 삶 안에서 잘못 이해된 신앙생활과 영적 체험은 우리를 성경이나 교회의 가르침에서 멀어지게 만들면서 기적이거나 신비스러운 어떤 현상을 추구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하면 종말에 대한 허황된 주장에 빠져 들거나 기적만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충격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신앙의 체험이라고 생각하여 광신적인 열심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광신적인 열심은 자기 중심의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이 현실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져 스스로 고립하게 되고 적은 수의 어떤 집단들과 결속해 비밀스런 신앙생활을 만듭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예수께서는 또 “이 세대에게 보여줄 징조는 하나도 없다”고 하실지 모릅니다.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고 그 들은 말씀을 생활 속에 살아내야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 보여져야 하는 것이 신앙이고 보려고만 애쓰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해 주는 하느님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보고 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듣고 이성과 마음의 눈으로 알게 되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분이시지만 인간이 마음대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백종우

- 권 가타리나 수녀 -

짧은 글 깊은 생각

혼란스럽거든 십자가를...



성 프란치스코 드 살의 편지에는 그가 살던 시골 관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샘에서 물을 길어 놓가 마당을 가로질러 오는 하녀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녀는 가장자리까지 찰랑거리는 물동이를 들어 올리기 전에 언제나 나무토막을 물동이에 띄웠습니다. 하루는 하녀에게 다가가 “왜 나무토막을 띄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녀는 어처구니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건 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나무토막이 물을 출렁거리지 않게 해준다는 걸 모르세요?”

그 후 주교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네도 마음이 괴롭고 혼란스럽거든 그 한가운데다 십자가를 띄워 흔들리지 않게 하게나.’ 백종우

- 유희은 글입니다. -

“함께 합니다.” 마감: 1.17(일)까지 / 문의: 250-3051, E-mail: samok@dgca.or.kr

교구 사목국에서는 2010년부터 전 교구민의 기도와 마음과 열정을 하나로 모을 기도, 영성, 실천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교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참신한 생각들, 프로그램들, 방법들을 알려주십시오. 좋은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신 분들에게 포상이 준비되어있습니다.

박형진(아오스딩신부 퇴임감사미사)
• 일시: 1.31(일) 15:00, 장소: 봉덕성당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1.24(일) 밤 김현수(마오로)신부님 10주기입니다.

★ 모임행사 ★

성바로 2020 이벤트 (256-4592)

성바로출판사 도서, 음반, 성물카드 등 매일 20일 20% 할인 행사를 합니다. (타출판사 제외) (20수) 성바로 대구서원(성모당부근)

본당 반주자들의 고민해결을 위한 모임(1)

- <성가가 느리요> 문의: 255-4847
- 강사: 오르기니스 박수원(한예중, 연세대, 가톨릭음악원출강)
- 일시: 1.17(일) 15:00, 장소: 대구가톨릭음악원

가톨릭미용인회 빛모임

- 일시: 1.25(월) 20:00 상인성당(미사)
- 문의: 018-560-3086 / 010-8397-9783

대구대교구지속성인성체조배회 제7회성체산삼세미나

- 일시: 1.25(월)~27(수), 장소: 한티피정의 집
- 강사: 신부: 하성호(사도요한), 이홍근(마오로), 서덕교(야고보), 송재준(마르코)

• 지도: 신부: 정기모(요한보스코)

• 문의: 010-5493-1819, 화비: 15만 원

IMD '미음을 주었습니다' 연극공연

- 일시: 1.29(금) 19:00, 장소: 경산성당
- 문의: 경산성당 사무실 T.813-0516, 010-3508-8254
- 이날수익금은 출산장려운동 및 미혼모 돕기 운동에 쓰여집니다.

RENEW 선택

- 일시: 1.29(금)~1.31(일), 장소: 꾸르실로 교육관
- 대상: 선택 주말을 수강한 성직자, 수도자, 젊은이, 부부
- 신청방법: 대구선택 카페 http://cafe.daum.net/daeguchoice
- 마감: 1.22(금), 문의: 010-3187-3145

★ 성소모임 · 피정 ★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겨울성소피정

- 대상: 대학생 직장인 남성(1차, 20(금)~31(일) 2차, 25(금)~7(일) 중 · 고등부 1.25(일)~27(수)(선착순 60명)
- 주제: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 문의: 010-9890-8809(조루도비교신부)

제1차 성소식별피정 '너 어디있나?' (창세3,9)

- 일시: 2.4(목)~7(일), 장소: 서울 영성의 집
- 대상: 젊은 미혼여성, 피정비: 4만 원
- 문의: 010-2646-7765 전교가르멜수녀회

『교구 100주년, 선교 복음의 나팔수-마오로 선교, 피정 연수』

- 일시: 화-토 2-3시간, 장소: 선교센터(계산문화관3층)
- 대상: 본당 20~40명, 지도: 이관석 신부
- 신청: 한국교구교구기두선교단 781-6100
- ※ 본당 전교우 선교연수 별도 신청

★ 모집 · 교육 ★

성기요양원 직원모집

- 문의: 054-976-8122(www.sug.or.kr)

새얼이간학교 교사 및 학생 모집

- 교사: 대학생 또는 젊은이들
- 학생: 검정고시 준비반(중 · 고등과정) 학비무료
- 장소: 가톨릭문화관내(1호선 3번출구 교대역)
- 문의: 472-2376 / 010-2501-6921(우상수)

마리아 학교 수강자 모집(수강료 20만원 교재비 포함)

- 기간: 3월~10월 매주/주간 14:00~17:00 야간 19:00~21:30
- 대상: 성모님을 알고 사랑하고 싶은 자
- 장소: 부산마리아피정센터(동향성당), 개강: 3.2(화) 14:00
- 접수: 1.15(금)~2.28(일), 문의: 774-0448/010-9620-4820
- 계좌: 우리은행 1006-301-276411 티없이신 성심

필리핀 해외봉사&여학연수 단체 출국모집

- 일정: 2.24(수)~4.21(수) 8주, ~5.19(수) 12주
- 지역, 대상: 필리핀 바롤로드/대학생 및 성인
- 주관: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원
- 문의: 593-1273 / 016-804-4410
- 내용: 캐나다, 호주 영어연수 연계가능

2010학년도 가톨릭성직대학 신입생취약교육생(대구반) 모집

- 모집학과: 사회복지과(야간)
- 모집기간: 12.10(목)~1.26(화)
- 교육장소: 대구시립회맹원 (지하철대곡역에서 150m)
- 입시문의: 입시홍보처 054-851-3021-2, 팩스 054-851-3009

어버이 성경학교 평생 교육반 모집

- 일시: 매주 월 10:00-12:30 / 19:00-21:30
- 접수: 1.2(토)~2.23(화), 면접: 2.21(일)~23(화)
- 대상: 어버이 성경학교 졸업자, 동등한 자격자
- 내용: 지혜서, 아가, 루카복음(심화)
- 문의: 어버이 성경학교 교육관 815-1114

대구가톨릭대학교 부동산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부동산 경, 공매 채테크과정 30만 원
- 개강: 2.18 매주 수, 목 10:00~13:00 / 19:00~22:00
-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감삼동캠퍼스 평생교육원
- 문의: 568-9800 / 010-4161-4443

가톨릭여성교육관 수강생모집(254-6115)

- 월 10:00 사랑의 윤리학, 10:00 영어증급15주
- 월 14:00 웃음치료, 화 14:00 미술치료
- 화 19:00 수치침적격반, 목 18:00 청찬기술적격반
- 금 10:00 영어기초반, 금 14:00 청찬기술
- 금 11:00 재대꽃꽃이 다해, 금 13:00 사범꽃꽃이

시청각동신성서교육원 학생모집

- 우편과 인터넷을 이용한 신구약성경 입문과정(2년)
- 자격: 고졸 정도의 학력 소유자 (교과초월)
- 원서교부: 인터넷, 전국 마오로팔, 성마오로서원
- 접수: 1.20(수) (www.paulinebible.or.kr)
- 문의: 02-944-0819, 24 성마오로팔수도회

★ 안내 ★

대구평화방송 이웃돕기 성금모금

- 대구은행: 009-12-004091 대구공동모금회
- 농협: 301-0035-6466-71 경북공동모금회
- 모금기간: 12.1(화)~1.31(일), 문의: 251-2611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미사	1월 18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한티성지 후원회 월례미사	1월 18일(월) 오전11시	한티순교성지
4대리구 경주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월 18일(월) 오전11시	성동성당	원로사제 월요 낮 미사	1월 18일(월) 낮12시	성모당
			김천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1월 19일(화) 오전10시	평화성당

2484 익스프레스

- 칠 곡 313-2484
- 서 구 566-2484
- 달서구 637-2484
- 수성구 761-2484
- 한여기(마오로) 011-514-3855

성모노인복지센터

요양등급 받으신 대상자에게 전문케어 서비스 제공
요양등급판정 받으실 분 친절상담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내 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으로 어르신들 모시겠습니다."
☎ **달서구: 053)564-1577**
남구: 475-1877 / 수성구: 784-2888

대장 · 항문(치질, 변비) 전문클리닉 늘 시원한 약문의과

원장 의학박사: 노성균 (아우구스타노) 치질, 변비, 소아변비, 변실금, 위·대장내시경 여성성형 입원실 · 지하 무료주차장 완비
959-7175(치질치료), www.hangmuns.com
신석대우아파트 북쪽거리
분원 ■ ■ ■ 대구은행 200m
신신교 해매곡역 시장

결혼상담

27년 전통의 성가정을 위한 만남의 장
성심결혼
558-3003, 644-4007
비산내거리(서부 초등학교 옆)
류성일(마리아) · 함(논나)

20년 역사의 SHINCHUN이 운영하는
DINE ONE
나만을 위한 최고의 식사 多人園
단체급식 / 출장연회 / 프랜차이즈
www.shinchun.co.kr ☎ 956-9900

치질 · 치루 · 항문병 수술
선일외과의원
원장, 전문의: 배선익(사도요한)
TEL: 745-6633~4
지하철 2호선 범어역
범어내거리, 수성못방향 → 300m

노동부 지정
성푸텍스 요리직업 전문학교
국비지원(계좌제)
취업반 ▶ 창업반 ▶ 자격증반
위치 ▶ 지하철 권고개역 1번출구
원장 김 경희 스테파니아
Tel : 053)953-9800

긍정에너지 가 넘치는
성인 행복을 심는 **치교+병원**
상인 롯데백화점 주차장 입구
롯데리아 건물 5층
T.633-7504/634-7504
원장: 강원일(안드레아), 권광, 구선주